

새인물 ... 손광운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국장으로서 손광운(사진·50) 서기관이 8월 1일자로 부임했다. 손 사무국장은 1979년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1983년 5월 21일 행정서기, 1988년 5월 11일 행정주사, 1991년 12월 14일 행정주사, 2001년 7월 1일 행정사무관, 2007년 1월 1일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그동안 손 사무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정당 정치자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실 총괄기획관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실 인사관리과장 직무대리 등을 거쳐 8월 1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부임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김영우 국회의원 지역구서 영어 특강

화현면 청소년공부방에서 어린이 대상으로

김영우(한나라당, 포천·연천) 국회의원이 7월 31일 오후 7시부터 화현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공부방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어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 나선 김 의원은 "세계화의 초석이 될 청소년들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어 훌륭하게 자라나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포천시 화현면 청소년공부방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학습지도를 실시, 농촌 가계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지역 청소년 공부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화현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지난 16일부터 매일 저녁 두 시간씩 청소년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지도하고 있다.

강사는 인근 군부대 16연대 장병 중 교원, 강사, 유학생 출신의 자원봉사자 27명이 교대로 강의를



김영우 국회의원이 7월 31일 오후 7시부터 화현면 주민자치센터에서 공부방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어특강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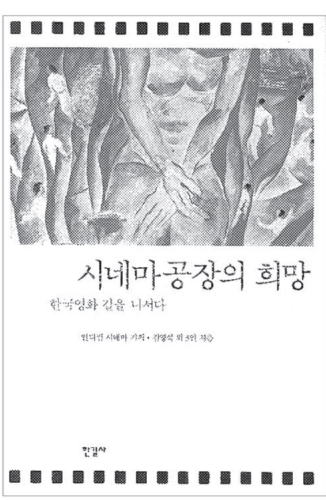
진행, 청소년지도위원회, 자율방법 및 화현면사무소 등에서 교재 및 차량을 지원하며 지역 봉사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화제의 책 ... '시네마 공장의 희망'

한국영화 길을 나서다

백상예술대상, 한국방송대상 등 다채로운 최고 작품상을 수상한 김영석 감독의 작품은 '베트남전쟁 그 후 7년' '카리브해의 고드, 쿠비' '세계영화기행' '생명시대' 등이 있다. 한국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계의 신화'로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영화 이야기를 감독만이 아닌 배우까지 등장시켜 영화인들에게 교과서적 자료를 제공했다는 사실은 한국 영화 역사에 보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김영석 감독의 열정이 아니면 '시네마공장의 희망'을 펴낼 수 없었을 것이다. 김영석 감독의 열정이 아니면 '시네마공장의 희망'을 펴낼 수 없었을 것이다. 김영석 감독의 열정이 아니면 '시네마공장의 희망'을 펴낼 수 없었을 것이다.

김창중 (수필가, 본지 자문위원회 고문)

여성단체 활동의 혁신과 개선이 필요

포천시여성단체협의회 8월 월례회의에서 지적

포천시 여성단체 협의회(회장 김순임)는 8월 4일 오전 11시 각 여성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되는 국제교류 청소년 홈스테이에 급식봉사, 매월 둘째 넷째 주 금요일 나눔의 장터, 9월 4일 실시되는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 관계자는 "2008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여성단체에 대한 사업비지원 내역과 활동내역을 보면 예산지원의 경우 운영비, 대회 참가비용 등 경상적이고 단순한 분야에 대한 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사업내용의 경우에도 행사 지원 캠페인 활동 등 주로 시장 업무의 보조적인 역할로서 사회 여성단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매년 전례 답습적인 활동보다는 농촌 일손 돕기나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전통요리의 개발을 통한 자체 소득원 창출 등 활동의 혁신과 개선의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여성단체협의회 김순임 회장은 내년 예산 지원 방향도 이러한 관점에서 사업 계획을 세워 9월 월례회의 때 제출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은미 주부명예기자단 이사 didmsal8523@hanmail.net



포천시 여성단체 협의회는 8월 4일 오전 11시 각 여성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월빙 부사의(不意) 효율(效率)과 효과(效果)

효율은 비율(比率)을, 효과는 결과(結果)를 말하는 것

효율(效率)과 효과(效果)가 뭐가 다른지 묻는다면 대부분 망설일 것이다. 거기서 거기란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이 효율과 효과다. 효율은 비율(比率)을 말하는 것이고 효과는 결과(結果)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비율이란 일의 과정(過程)을 말하는 것이고 결과란 일의 성취(成就)를 말하는 것이다. 효과를 최종 목표로 생각하는 사람은 일의 결과만을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효율은 그게 아니다. 효율을 최종 목표로 생각하는 사람은 일의 과정을 생각해야 한다.

효율은 주어진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효과는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하면 성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사업(事業)을 하는 사람은 결과

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결과만 좋으면 되기 때문이다. 이익만 남기면 되기 때문이다. 사업을 하는 목적이 이익추구(利益追求)에 있기 때문이다.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方法)을 가리지 않는다. 상대를 생애도 된다. 아니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정치(政治)는 그게 아니다. 정치는 이익추구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화합(和合)하고 수렴(收斂)하는데 있다. 대화(對話)하고 타협(妥協)하는데 있다. 그래서 정치(政治)는 화합(和合)하고 수렴(收斂)하는데 있다. 대화(對話)하고 타협(妥協)하는데 있다. 그래서 정치(政治)는 화합(和合)하고 수렴(收斂)하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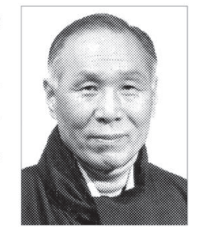
때문에 비교(比較)하게 되는 것이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대화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화를 통해 의견(意見)을 수렴하고 합의(合意)를 찾아가는 것이 합의(合意)를 위한 것이고 공통(共通)분모(分母)를 찾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정치는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협일무위(協一無違)가 기본이기 때문이다. 서로 의논(議論)하고 협의(協議)해서 합의점을 찾아나가기 하기 때문이다. 성취보다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정치이기 때문이다. 결과만 따져서는 백성(百姓)이 따라주지 않는다. 그 혜택(惠澤)이 골고루 미쳐야 한다. 상대적 박탈감(剝奪感)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으나 배 아픈 것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支配)적이기 때문이다.

과도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효율만을 놓고 다룬다기 때를 놓치고 시기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당장은 소용이 없는 것 같고 필요 없는 것 같지만 후일 요긴하게 쓰이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한 사람의 해안(翹翹)과 판단(判斷)이 수천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지금 WTO 시대에 살고 있다. WTO 시대란 빗장을 열어놓고 경쟁(競爭)하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승자독식(勝者獨食)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일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효율을 생각해야 하는 시대이다. 이 같은 이율배반적(二律背反的)인 시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효율도 생각해야 하고 효과도 생각해야 한다. 과정(過程)도 중요하지만 결과(效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규임 인곡영생체육학원 명예회장

자유기고 한 여름밤의 작은 음악회

박복준 주부명예기자단 이사

제는 듯한 더위 속에 영종면의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50여명의 학생들이 영종초등학교의 현악부가 발족되어 뜻깊은 발표회가 열린 것이다. 사실상 독주는 혼자만의 소리 음으로 자신의 소리를 표출 할 수 있으나 합주는 호흡과 기술을 요하는 것이다.

동두천 오케스트라의 연혁으로 보아 2001년 시작으로 8년이란 역사와 새내기 불과 4개월의 공동체가 어우러진 함께 노력하는 실력은 출중하다.

영종초교의 4개월 남짓 쌓은 실력이라기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선생님의 뜻깊은 배려와 선생님들의 격려로 만들어진 합주단이라지만 부모님들의 노력이 한층 더했으리라 짐작해 본다.

예능교육은 적성에도 맞아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환경임에도 현악부 학부 모님의 열의는 한 여름밤의 열기를 더 한층 뜨겁게 한다.

삼삼오오 모여드는 가족들의 화기 애와 작은 별들의 합주곡은 거룩한 천사의 합창소리와 함께 했다.

시원하고 경쾌한 동두천의 중후하고 멋스런 합주에는 관중석의 우뢰와 같은 박수를 자아내게 했고, 4박5일 동안의 합숙훈련으로 지역문화의 활성화 화를 위한 뜻으로 다들 모여져 더 나아가서는 포천을 대표 할 수 있는 현악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Essay 목욕탕 친구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부위원장

"아줌마!! 물 튀잖아!! 아이 차가워!! 여러 사람이 있는 목욕탕에서 이렇게 물장구를 치면 어떻게 하요!!"

새벽일을 끝내고 피곤한 몸을 풀려고 동네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는데 열 방탕에서 한 아줌마가 물장구를 치며 사방에 찬 물을 뿌려댄 것입니다.

사람들이 눈살만 찌푸릴 뿐 누구 하나 열른 나서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에게도 찬 물이 튀는 바람에 제가 나서서 한 마디 한 것입니다.

그러던 그 아줌마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물 좀 튀었다고 그렇게 짜증을 내냐? 난 잘못된 거 없으니까 몰라!"

당연히 미안하다고 한 마디하고 그만 둘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쪽에서 제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전 너무 기가 막혀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데 미안하다고 한 마디 하면 될 걸 가지고 말한 사람을 탓하고 있네. 나 원 참 기가 막혀서..."

그러자 그 아줌마는 뜻밖은 척하고 자기 할 일만 하는 듯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대중 목욕탕에서 기본 에티켓은 지켜줘야 하는데 그러냐. 머 보고 있던 아줌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더 이상 그 아줌마도 물장구는 치지 않고 저도 제 할 일만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아침에 목욕하려 갈 때 마다 그 아줌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서먹하여 눈길을 어디에 두어야 할 지 난감하기도 하고 먼저 말을 붙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자주 만나다 보니 차츰 인사도 하게 되고 이런 저런 말도 붙이게 되었습니다.

아줌마도 제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지 먼저 말을 붙이기도 하고 인사도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줌마가 불췌 세계 음료수 한 병을 내미는 것이었어요.

"아침 목욕하러 올 때마다 신문 돌리느라 고생하는 걸 봤는데 젊은 사람이 참 열심히 사는 거 같아서 보기 좋더라. 혼자서 목욕하러 오면 등 밑 어쨌 사람도 없지. 내가 밀어줄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줌마는 매일 목욕탕에서 일하는 사방에게 때를 밀기 때문에 사방을 같이 밀어 줄 수도 없었죠.

저는 어찌나 고맙고 미안한지 몸 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 후 아줌마를 만날 때마다 제가 먼저 음료수를 사 드리기도 하고 이런 저런 사는 얘기도 해 가며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줌마가 혼자서 때를 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도 궁금해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일하는 사람이 너무 건성으로 때를 밀어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끼리 그냥 서로 등을 밀어 주자고 얘기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받은 호의를 나눌 땐 기회 온 것 같아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줌마는 제 등을 신경 써서 잘 밀어주시고는 제가 밀어드리려고 하니까, "나는 커서 밀기가 힘들거야. 적당히 손 안 닿는 곳만 해주면 돼. 매일 하는 목욕이니 나을 때도 없어요."

그리고는 제가 더 밀어드리려고 해도 한사코 거절하시며 오히려 제게 음료수까지 사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목욕탕에 갔을 때 아줌마가 오시지 않으면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생겼죠.

이렇게 우리는 목욕탕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혼자서 등을 밀려면 꽤 힘이 들고 개운치 않았는데, 이제는 언제든지 저의 목욕탕 친구를 만나서 서로 등을 밀어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겨 스펀지 든든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고 생활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아무리 안 좋은 일로 만났던 하더라도 서로 조금만 배려하고 노력한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새롭게 깨달으며, 저는 오늘도 지친 몸을 쉬러 목욕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의 목욕탕 친구를 만나러....

자유기고 흐린 날 뒤에 맑은 날

윤경자 주부명예기자단 감사

-당신이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도 있습니다.

신이 저에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삶을 주신다면 전 선택 받을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도 지금처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서야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무한한 능력을 주셨지만 그에 비례하는 고통의 인내심도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기에 혹, 윤회설에 의해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너무나 되어 손자부터 할아버지까지 모두의 친구이자 험타인 고풍으로 살아가는 것도 편함을 것 같습니다.

더위가 위세를 떨치던 7월, 임대 아파트 관리단에서 재계약이 불가능하니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고 두드러보다 더 힘든 한 달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농사를 짓고 계신 아버님의 농토가 공시지가가 올라가 계약조건에 부합하다는 실망이 이어집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걱정이 없었지만 어려운 실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금 너무도 난감했고 2년 전 학교가 가깝다고 해서 친구에게 자랑하던 딸아이의 모습과 능력 없는 부모라고 아이들에게 실망을 줄까봐서 늦은 밤 잠을 청하지 못합니다.

우리네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단지 정부에서 정한 공시지가의 변화로 인해서 오히려 힘든 처지와 맞닿은 현실이 비겁기만 합니다. 다음날 마땅한 집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보다가 없는 실용에 집에 돌아와 신랑에게 이유 없이 화를 내고 그 다음날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이사가 지체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으니 사무직원 말투와 포기하라는 결론으로 내 가슴을 열어붙게 합니다. 굳이 결론을 낼 필요까진 없는데도, 힘겨운 현실 앞에서 두통과 불면증에 포박 당하고 일 년 같은 듯함을 보내야 했습니다.

-남에게 미움 사지 않으면서 살다보니 다시 도움으로 돌아오더군요.

다음날 18년 지인인 그녀를 찾아가 커피를 마시니 왜 그렇게 힘들어 보이냐고 묻습니다.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다보니 어떤 때는 남편보다 제 속을 더 잘 읽어냅니다.

업무에만 충실한 관리실 직원을 나쁜 놀리라고 꾸짖하면서 서 답답한 속을 털어 놓습니다. 그녀는 어려워면 돈을 빌려 줄 테니 전세방을 얻어 보라는 든든한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 여유가 있어도 하기 어려운 일이란 걸 알기에 그 제안이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럽습니다. 또 다음날엔 비록시장의 전세방과 주변의 복덕방을 전화해가며 함께 방을 돌려가자고 합니다. 뜻이기는 적 따라서 여기 저기 방을 둘러보았지만 여건에 맞는 곳을 찾지 못한 채 집지는 않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전화를 해서 받아보니 로또라도 맞은 것처럼 들뜬 소리로 이야기 합니다. "언니, 다시 한번 읽어봐! 어떤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 데에 아빠 친구가 나서서 소명시키고 다시 계약하고 살고 있데!" 하면서 자제히 설명을 합니다.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거나 농토가 많아도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농지원부에 나타남)만 확인되면 소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저도 용기가 났고 온 몸의 세포가 땀땀 일어나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하여 관리단인 아닌 서울 본사 상담실에 전화를 걸어 정황을 설명하니 "농지 원부만 제출하면 소명이 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더군요. 기쁜 마음에 바로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하던 관리단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실을 알리니 아무런 지장 없이 자료를 보내달라는 조용한 말씨가 건네옵니다.

며칠 동안의 근심걱정을 억울해서 따지고도 싶었지만 호사다라고 일이 잘 해결되는 마당에 화를 내서 무엇하겠나 싶어 전화를 끊고 면사무소에서 자료를 발부 받아 듣기 속달로 보냈습니다. 정말이지 백 만 원 어저러도 술을 사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모든 걱정거리를 자기 일처럼 나서서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그녀의 마음에 전 감동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풍요로운 8월을 맞이합니다. 더 착하게 살아야겠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